

무주반딧불이 롯데월드서 만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돕는다

무주군-롯데월드, 생물 다양성·보전 연구 협력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군이 21일 롯데월드와 생물 다양성 및 보전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반딧불이 전시와 교육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롯데월드 최홍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무주군 공무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군이 21일 롯데월드와 생물 다양성 및 보전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생물 다양성 및 보전에 관한 연구의 공동 수행과 인적교류, △연구자원의 공동 활용, △생물 전시에 관한 기획·제작 및 교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동 활용, △공동 마케팅 및 전시부스 상시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내 최초 실내 놀이공원과 민속박물관, 아이스링크(스케이트장), 수족관 등을 보유한 롯데월드와 맞닿은 손이 상생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무주군의 반딧불이 연구에 관한 기술력과 경험에 청정 환경 군으로서 그간 주력해 온 친환경 실천의 변경을 넓히고 효과를 키우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생태계 관광 시설에서의 반딧불이 전시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자연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를 알리는 계기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 무주군은 반딧불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과 생태계복원, 서식지(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곳, 다

발생지역 5곳)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 해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연간 12회)를 진행해 자연생태학습장으로의 지정무주를 알리고 있다.

반딧불이 연구소에서는 애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사육관리를 비롯해 운문산·늦반딧불이의 사육시험 연구, 육서종 반딧불이 먹이 사육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딧랜드 공룡박물관 내에 반딧불이 생태체험관도 운영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안정적 정착 위해 한국어 교육·화합한마당 잔치 등 진행

장수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가족·친척,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을 모집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수군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25명이 입국해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

최근 타지역에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하거나 마약을 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장수군의 경우 이미 지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초청해 일손을 지원하는 만큼 사건·사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에 더해 장수군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중에 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농가주들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한국생활의



기본소양지식 습득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저녁시간, 주말 등을 활용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생활적응 문화이해 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화합한마당 잔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외에도 다양한 영농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수군 내 농가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력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 배치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제286회 마이학당 개최

진안군은 21일 군청 강당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제286회 마이학당을 개최했다.

강의는 정미희 모티브인 컨설팅 대표가 강사로 나서 ‘MBTI 유형으로 알아보는 소통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번 마이학당에서는 요즘 MZ 세대들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격유형지표(MBTI)를 토대로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밸런스 게임과 성격유형별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며 더 상세하게 유형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양한 소통사례들을 설명해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마이학당 강연을 통해 얻은 사례를 통해 조직 내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 시 타인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갈등상황을 줄이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능력이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읍 소재지 교통체계 개선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진안군은 21일 군수실에서 ‘진안읍 소재지 교통체계 개선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진안읍 소재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교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주차, 보행, 교통안전, 통행체계 등 전반적인 교통처리계획을 강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교통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안군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읍·면 의견수렴, 실무회의 2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의원보고회 등을 거쳤으며 그 결과 △진안읍의료원 남측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진안로터리 기하구조 개선 등 총 42건의 개선안을 발굴했다.

군은 제시된 개선안은 교통사고, 보행안전, 교통안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나눠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검토 후 실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방상수도 재포장사업은 예산낭비 대표사례”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철저한 시공·엄격한 감리 촉구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상수도 공사 재포장사업에 예산낭비를 우려하며 철저한 시공과 엄격한 감리를 촉구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피폐우기를 하고 다짐을 제대로 한 후 포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정이다. 자연침하 후 도로를 포장하기까지 기다리기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일찍 포장을 했다는 행정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관로매설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긴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감리도 부실시공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 일이 커진다”며 삼거리 지방상수도 재포장사업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송재기 위원장은 “관로매설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긴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감리도 부실시공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 일이 커진다”며 삼거리 지방상수도 재포장사업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 위촉

진안군은 오는 9월 22일~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3 진안홍삼축제’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축제 홍보의 시작을 알렸다.

군은 21일 군청 상합실에서 ‘2023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홍보대사 15명을 위촉하고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진안홍삼축제는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한국 방문의 해 K-컬처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관광 축제로 진안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이스산복부 일원에서 진행된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오는 9월까지 고향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여름철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무주군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만성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주읍을 비롯한 관내 5개면 주민 3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는 무주군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과 읍·면 간 호사, 보건 진료직 등 18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운동 자제하기 △물 자주 마시기 △외출 시 헤파필트 마스크 쓰기 △외출 시 햇볕이 강한 곳 피하기 △외출 시 충분한 휴식 등 여름철 예방수칙을 공유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여름철 온열질환은 장시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사·열사병, 열 실신, 열 경련, 열 탈진 등이 해당된다.

구토와 고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심·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료팀 최정대 팀장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 그늘, 휴식 3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온열질환 증상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에서는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 불철 미세먼지·황사 등 계절별 건강 악화 요인 및 질환에 맞춘 방문건강관리(건강상태 확인 및 관련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